本草의 同味異用에 對한 硏究

- 成無己의『注解傷寒論』을 위주로 -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1] · 生理學敎室[2] · 本草學敎室[3]

趙學俊[1,*] · 김호현[2] · 임강현[3]

Study on the Different Effect of Same Taste of Herb

- mainly based on『Chuhaisanghannon(注解傷寒論)』by Seongmugi(成無己) -

Jo Hak-jun[1,*] · Kim Ho-hyun[2] · Leem Kang-hyun[3]

Dept. of [1]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2]Physiology, [3]Herb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We got some conclusion about the function of five tastes from individual peculiarity, from『Sanghanjapbyeongnon(傷寒雜病論)』by Sungmoogi, like below.

1. Five tastes[五味] have their general function, but herbs of one tastes, each has special function, we can define it as individual peculiarity.

2. For example, sour taste generally make it convergent, astringent. The sourness of Paeoniae Radix Alba[芍藥] can convergent resin, and be help nutrition, but same of Phaseoli Semen[赤小豆] can make him vomit.

3. Bitterness generally make it down, dry, and solid. Scutellariae Radix[黃芩], Coptidis Rhizoma[黃連] can bring down fever of heart and spleen, but Rhei Radix Et Rhizoma[大黃] eliminates solid illness.

4. Sweetness make it strong, harmonic, relax. Sweetness of Glycyrrhizae Radix[甘草] flows into spleen, make it relax the part of beneath heart. Puerariae Radix[葛根] can make scatter the cold on skin.

5. General nature of hot taste is diffusion, sheen, rampancy. Cinnam omi Ramulus[桂枝] eliminates the Pung(風) in Wigi(衛氣). same Zingiberis Rhi zoma[乾薑] make inner cold scattered, and warm stomach.

6. Salty make Gi(氣) down, and slacken solidity. salty Natrii Sulfas[芒硝] removes heat of body. But Alismatis Rhizoma[澤瀉] removes needless water.

7. To know peculiarity of each herb, not only one taste but other combined tastes, and areas medical, agricultural, biologic, etc.

Key Words : five tastes[五味], different effect of same taste, specialty of herb

Ⅰ. 序 論

五味의 일반작용에 대해서 汪昂은『本草備要·藥性總義』에서 "酸者는 能澁 能收요 苦者는 能瀉 能燥 能

* 교신저자: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전화 : 043)649-1347. E-mail : johohun@kornet.net

www.kci.go.kr

堅이요 甘者는 能補 能和 能緩이요 辛者는 能散 能潤 能橫行이요 鹹者는 能下 能軟堅이요 淡者는 能利竅 能滲泄이라."[1]라고 하였다. 『本草學』에서 이를 현대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辛味는 體內에 들어가서 助熱, 發散, 利竅, 潤燥, 開腠理, 上昇, 發汗, 健胃, 食慾을 증진시킨다. …… 甘味는 체내에서 근육의 弛緩작용과 飢餓와 피로를 풀어주며 潤腸, 發生, 上行, 補氣, 補陽, 解毒, 緩和, 止渴生津 작용을 나타낸다. …… 酸味는 체내에 들어가 收斂시키는 작용이 있어 止嗽, 治遺精, 小便不禁, 斂熱, 斂散, 澁腸, 固澁生津, 泄瀉 止虛汗하는데 활용된다. …… 苦味는 체내에 들어가서 沈靜, 淸熱, 降泄, 堅脆, 燥濕, 消腫, 解毒, 消炎, 養血, 補陰, 瀉火, 瀉下 작용을 나타낸다. … 鹹味는 체내에서 柔軟 작용을 일으켜 軟堅, 凝結, 沈下하여 治瘰癧癭瘤에 유효한 효과를 얻는다."[2]라고 하였다.

한편 成无己가 『注解傷寒論』에서 五味의 作用으로써 和劑의 意義를 설명한 것은 모두 67종에 달한다. 그 중에서 汪昂의 「藥性總義」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는 五味의 '일반작용'으로써 설명하였는데, 동일한 味를 지니고도 서로 다른 작용으로써 설명한 곳도 있다.

이처럼 處方에 사용된 本草의 작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동일한 味를 지니고 있으면 동일한 작용을 한다는 五味의 '同味同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味를 지니고 동시에 해당 본초 각각의 쓰임이 있음(同味異用)을 발견하였다.

五味에 대한 文獻硏究는 朴勝正 等의 '五味에 對한 文獻的 考察'[3]이 있으나, 方劑의 분야에서 本草의 '同味異用'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처럼 處方 내의 本草 작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획일적으로 五味의 一般論으로만 해석하여 穿鑿해서는 안 되고 同味異用까지 고려하여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本 論

1. 桂枝湯

桂枝三兩[去皮],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生姜三兩[切], 大棗十二枚[擘][4]

氣味陰陽과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여 桂枝, 芍藥, 甘草, 生薑, 大棗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氣味陰陽에 의하면 桂枝湯은 桂枝의 辛味와 甘草의 甘味가 합쳐져서 風邪를 發散하게 하기 위함이다.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厥陰司天(巳亥年)에 風淫所勝, 平以辛涼, 佐以苦甘, 以甘緩之, 以酸瀉之(王注云: 厥陰氣未爲盛熱, 故以涼藥平之). 淸反勝之, 治以酸溫, 佐以甘苦."라고 하였는데, 風淫所勝에 桂枝의 辛味는 평안케 하니 主가 되고 芍藥의 酸味는 收斂케 하고 甘草의 甘味로 이완케 하니 佐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厥陰在泉(寅申年), 風淫於內, 治以辛涼, 佐以苦, 以甘緩之, 以辛散之"라 하였는데, 風淫於內에 生薑의 辛味로써 發散하고 大棗의 甘味로써 이완케 하니 使가 된다.

2. 甘草乾姜湯

甘草四兩[炙], 乾姜二兩[5]

氣味陰陽에 의하면 甘草乾薑湯은 乾薑의 辛味와 甘草의 甘味가 합쳐져서 陽氣를 회복하게 한다.

3. 葛根湯

葛根四兩, 麻黃三兩[去節], 桂枝二兩[去皮], 芍藥二兩, 生姜三兩[切],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擘][6]

葛根湯은 中風의 表實에 사용하는 藥으로써 桂枝湯에 麻黃과 葛根을 더한 것이다. 이때 十劑理論에 의하면 麻黃과 葛根은 가벼운 재질로 인하여 表實을 제거하는 의의가 있다.

1) 汪昂. 本草備要(汪昂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19.
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敎室.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p.62-63.
3) 朴勝正, 金完熙. 五味에 對한 文獻的 考察(酸味와 肝機能系의 關係를 中心으로). 慶熙韓醫大論文集. 21권 1호. 1988.
4)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64.
5)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67.
6)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0.

www.kci.go.kr

4. 葛根黃連黃芩湯

葛根半斤, 甘草二兩炙, 黃芩三兩, 黃連三兩[7]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의 味는 發散하여 陽이 되는데 그 중에 葛根과 甘草의 甘味로써 表가 풀리지 않는 것을 發散케 한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苦能燥濕堅軟"하니, 黃芩, 黃連의 苦味로써 軟弱한 것을 굳게 한다.

5. 麻黃湯

麻黃三兩去節, 桂枝二兩去皮, 甘草一兩炙, 杏仁七十個去皮尖[8]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太陽司天(辰戌年), 寒淫所勝, 平以辛熱, 佐以苦甘, 以鹹瀉之. 熱反勝之, 治以鹹冷, 佐以苦辛."이라 하고 "太陽在泉(丑未年), 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以鹹瀉之, 以辛潤之, 以苦堅之(以熱治寒, 是爲摧勝, 折其氣也). 熱反勝之, 治以鹹冷, 佐以甘辛, 以苦平之."라고 하였다.

麻黃湯은 太陽司天의 治法을 사용하지 않고 太陽在泉의 "寒淫於內에 治以甘熱, 佐以苦辛"이라는 治法을 사용하였다. 麻黃, 甘草의 甘溫으로써 '寒淫於內'를 다스리니 主가 되고, 桂枝의 辛味와 杏仁의 苦味로써 寒을 흩고 下氣하니 佐가 된다고 하였다.

6. 大靑龍湯

麻黃六兩去節, 桂枝二兩去皮, 甘草二兩炙, 杏仁四十枚去皮尖, 生姜三兩切, 大棗十枚擘, 石膏碎鷄子大[9]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은 모두 發散하지만 특히 風은 辛味로써 흩고 寒은 甘味로써 發할 수 있으니, 辛味와 甘味를 합해야만 營衛의 風寒을 發散할 수 있으니 大靑龍湯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麻黃, 甘草, 石膏, 杏仁의 甘味로써 營中의 寒을 發散하고 桂枝, 生薑의 辛味와 大棗의 甘味로써 衛中의 風을 解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大靑龍湯은 營氣와 衛氣가 모두 寒과 風에 의하여 傷한 것을 치료한다고 볼 수 있다.

7. 小靑龍湯

麻黃去節, 芍藥, 細辛, 乾姜, 甘草炙, 桂枝去皮, 各三兩, 五味子半升, 半夏半升[10]

氣味陰陽에 의하면 寒邪가 表에 있을 때 甘辛의 味가 아니면 능히 發散할 수 없으니 麻黃, 桂枝, 甘草의 辛甘으로 表邪를 發散한다.

또한 水가 心下에 停留하여 行하지 않으면 腎氣가 乾燥해지는데,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腎은 燥氣로 인해 괴로워하니 급히 辛味를 먹어서 윤택하게 하니 乾薑, 細辛, 半夏의 辛味로써 水氣를 行하여 腎을 潤澤하게 한다.

또한 咳逆이나 喘은 肺氣가 逆上함이니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肺는 收斂하고자 하니 급히 酸味를 먹어서 수렴하니 芍藥, 五味子의 酸味로써 逆氣를 거두어 肺를 편안히 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小靑龍湯은 表水가 있어서 肺氣가 逆上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볼 수 있다.

8. 麻黃杏仁甘草石膏湯

麻黃四兩去節, 杏仁五十個去皮, 甘草二兩炙, 石膏半斤碎綿裹[11]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肝은 急함을 괴롭게 여기니 급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며, 風氣는 肝에 通하니, 麻黃, 杏仁, 甘草, 石膏의 純甘의 味로써 風을 發한다고 하였다.

9. 桂枝甘草湯

桂枝四兩去皮, 甘草二兩炙[12]

桂枝의 辛味는 肺로 달려서 氣를 돕고 甘草의 甘味는 脾로 들어가서 속을 느긋하게 한다고 하였다.

7)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1.
8)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1.
9)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71-72.
10)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2.
11)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5.
12)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5.

www.kci.go.kr

10. 茯苓桂枝甘草大棗湯

茯苓半斤, 桂枝四兩[去皮], 甘草二兩[炙], 大棗十五枚[擘][13]

茯苓으로 腎邪를 伐하고 桂枝로 奔豚을 泄하고 甘草, 大棗의 甘味로써 脾土를 도와 腎氣를 平定한다. 또한 甘爛水로 달이는 까닭은 물을 휘저어서 水氣가 무력하게 하여 腎氣를 돕지 않고자 함이다.

11. 厚朴生姜半夏甘草人參湯

厚朴半斤[去皮], 生姜半斤[切], 半夏半升[洗], 甘草二兩, 人參一兩[14]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苦濕, 急食苦以燥之(白朮), 以苦瀉之(黃連), 實則瀉子(桑白皮). 脾欲緩, 急食甘以緩之(炙甘草), 以甘補之(人參), 虛則補母(炒鹽)." 라고 하였으니, 脾는 느긋하고자 하니 급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니 人蔘, 甘草의 甘味로써 脾胃를 돕고, 脾는 濕을 괴로워하니 苦味로써 乾燥하게 하고 苦味로써 瀉하니 厚朴의 苦味로써 腹滿을 泄하게 한다. 또한 辛味는 "散結 潤燥"하니 半夏, 生薑의 辛味로써 滯氣를 흩는다고 하였다.

12. 茯苓桂枝白朮甘草湯

茯苓四兩, 桂枝[去皮], 白朮, 甘草[炙]各二兩[15]

陽이 부족한 자는 甘味로써 補하니 茯苓, 白朮의 甘味로써 津液을 생기게 하고 陽을 돕고 甘草의 甘味로써 陽을 行하게 한다. 裏氣가 逆上하는 자는 辛味로써 흩으니 桂枝로써 氣를 흩게 한다고 하였다.

13. 芍藥甘草附子湯

芍藥, 甘草[炙], 各三兩,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16]

五味所用에 의하면 酸味는 收緩斂散하니 芍藥의 酸味로써 津液을 收斂하여 營을 돕고, 辛味는 散結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附子의 辛溫으로써 陽氣를 굳게 하여 衛를 도우며, 甘味는 緩急調中하니 甘草의 甘味로써 芍藥의 酸味와 附子의 辛味를 조화하고 正氣를 편안케 한다고 하였다.

14. 調胃承氣湯

芒硝半升, 甘草[炙], 大黃四兩[去皮清酒洗][17]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少陰司天(子午年)에 "熱淫所勝, 平以鹹寒, 佐以苦甘, 以酸收之. 寒反勝之, 治以甘溫, 佐以苦酸辛."라고 하였고, 少陰在泉(卯酉年)에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熱性惡寒, 故以鹹寒. 熱甚於表, 以苦發之; 不盡, 復寒制之; 寒制不盡, 復苦發之, 以酸收之. 甚者再方, 微者一方, 可使必已. 時發時止, 亦以酸收之). 寒反勝之, 治以甘熱, 佐以苦辛, 以鹹平之."라고 하였다.

熱淫於內에 鹹寒으로써 치료하니 芒硝의 鹹寒으로써 熱을 除去함이 主가 되고, 甘苦로써 佐하니 大黃의 苦寒으로써 實을 蕩滌하고 甘草의 甘平으로써 芒硝, 大黃을 도와서 오래된 것을 밀어내고 속을 느긋하게 함으로써 佐가 된다고 하였다.

調胃承氣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五運六淫用藥式의 少陰在泉의 治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少陰司天의 治法과 少陰在泉의 治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의의가 없다.

15. 五苓散

猪苓十八銖[去皮], 澤瀉一兩六銖, 白朮十八銖, 茯苓十八銖, 桂枝半兩[去皮][18]

五味所用에 의하면 甘味로써 느긋하게 하고 淡味로써 滲泄하니 猪苓, 白朮, 茯苓의 甘味로써 虛燥를 潤澤하게 하고 津液을 이롭게 한다.

氣味陰陽과 五味所用에 있어서 鹹味는 下泄하니 澤瀉의 鹹味로써 水氣를 泄伏하며, 氣味陰陽에 있어서 辛甘은 發散하여 陽이 되므로 桂枝의 辛甘으로써 肌表를 조화롭게 한다고 하였다.

13)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6.
14)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6.
15)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6.
16)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76-77.
17)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68.
18)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7.

www.kci.go.kr

16. 茯苓甘草湯

茯苓二兩, 桂枝二兩[去皮], 甘草一兩[炙], 生姜三兩[切]19)

五味所用에 의하면 甘味는 緩急調中하니 茯苓, 甘草의 甘味로써 津液을 돕고 衛를 조화하며, 辛味는 散結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桂枝, 生薑의 辛味로써 陽氣를 돕고 解表한다고 하였다.

17. 梔子豉湯

梔子十四個[擘], 香豉四合[綿裹]20)

氣味陰陽에 의하면 酸苦는 涌泄하여 陰이 되는데, 苦味로써 涌吐하니 梔子의 苦味로써 涌吐하게 한다. 또한 寒으로써 熱을 이기니 梔子, 香豉의 寒으로써 熱을 이기게 하니, 梔子와 香豉가 서로 合하니 吐劑로써 마땅하다고 하였다.

18. 梔子厚朴湯

梔子十四個[擘], 厚朴四兩[去皮], 枳實四枚[浸水炙令黃]21)

氣味陰陽에 의하면 酸苦는 涌泄하여 陰이 되는데, 苦味로써 虛煩을 涌吐하게 하고 또한 厚朴, 枳實의 苦味로써 腹滿을 泄한다고 하였다.

19. 梔子乾姜湯

梔子十四個[擘], 乾姜一兩22)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로써 涌吐하니 梔子의 苦味로써 煩을 吐한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腎은 燥를 괴로워하니 급히 辛味를 먹어서 윤택하니 乾薑의 辛味로써 益氣한다.

20. 小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參三兩, 半夏半升[洗], 甘草三兩[炙], 生姜三兩[切], 大棗十二枚[擘]23)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少陰在泉(卯酉年)에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라고 하였는데, 특히 苦味로써 熱을 發하게 하니 柴胡, 黃芩의 苦味로써 傳經한 邪氣의 熱을 發한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는 느긋하고자 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니 人蔘, 甘草의 甘味로써 中和의 氣를 느긋하게 한다. 肝은 흩고자 하니 급히 辛味를 먹어 흩으니, 邪가 절반 裏로 들어가면 裏氣가 逆하게 되나니 半夏의 辛味로써 煩嘔를 흩어서 제거한다.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의 味는 發散하여 陽이 되니 邪가 절반 表에 있으면 榮衛가 다투니 生薑 大棗의 辛甘의 味로써 榮衛를 調和한다고 하였다.

21. 小建中湯

桂枝三兩[去皮],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擘], 芍藥六兩, 生姜三兩[切], 膠飴一升24)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는 느긋하고자 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니 膠飴, 大棗, 甘草의 甘味로써 속을 느긋하게 한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하니 榮衛가 不足하면 潤澤하게 하고 흩어지니 桂枝, 生薑의 辛味로써 榮衛를 行한다. 또한 酸味는 收緩 斂散하니 正氣가 虛弱하면 收斂하고 行하게 하니 芍藥의 酸味로써 正氣를 거둔다고 하였다.

22. 大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芍藥三兩, 半夏半升[洗], 生姜五兩[切], 枳實四枚[炙], 大棗十二枚[擘]25)

五味所走에 의하면 苦味는 먼저 心으로 들어가니 柴胡, 黃芩의 苦味는 心으로 들어가 열을 꺾는다.

氣味陰陽에 의하면 酸苦의 味는 涌泄하야 陰이 되니 枳實, 芍藥의 酸苦의 味로써 涌泄하여 扶陰한다.

19)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7.
20)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8.
21)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9.
22)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9.
23)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81.
24)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82-83.
25)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83.

www.kci.go.kr

또한 辛甘의 味는 發散하여 陽이 되니 生薑, 大棗의 辛甘의 味로써 榮衛를 調和한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散結 潤燥, 通氣하니 半夏의 辛味로써 逆氣를 흩는다고 하였다.

23. 桃核承氣湯

桃仁五十個[去皮尖], 大黃四兩, 桂枝二兩[去皮], 甘草二兩[炙], 芒硝二兩[26]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 致津液, 通氣하고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小腹이 急結할 때에는 桃仁의 甘味로써 누그러뜨리고, 下焦에 蓄血할 때에는 桂枝의 辛熱로써 흩는다.

24.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桂枝一兩[去皮], 甘草二兩[炙], 牡蠣二兩[熬], 龍骨二兩[27]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의 味는 發散하니 桂枝, 甘草의 辛甘味로써 太陽經의 火邪를 發散한다.

十劑理論에 의하면 깔깔한 재질은 虛脫을 제거하니 龍骨, 牡蠣의 깔깔함으로써 浮越한 正氣를 수렴한다고 하였다.

25. 抵當湯

水蛭[熬], 蝱蟲各三十個[去翅足熬], 桃仁二十個[去皮尖], 大黃二兩[酒洗][28]

五味所走에 의하면 苦味는 血로 달리고 五味所勝에 의하면 鹹味는 血을 이기니 虻蟲의 苦味, 水蛭의 鹹味로써 蓄血을 제거한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桃仁의 甘味로써 맺힌 熱을 내린다.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로써 泄하니 大黃의 苦味로써 맺힌 熱을 내린다.

26. 大陷胸湯

大黃六兩[去皮], 芒硝一升, 甘遂一錢匕[29]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는 苦味로써 瀉하니 大黃의 苦味로써 蕩滌한다. 鹹味는 軟堅하니 芒硝의 鹹味로써 능히 단단한 것을 軟하게 한다.

논 사이에 甘遂가 있어서 水氣를 통하게 하니 甘遂가 그 氣를 따라서 直達하고 맺힌 것을 뚫는다고 하니, 이는 甘遂가 서식하는 특성으로써 해석한 것이다.

27. 小陷胸湯

黃連一兩, 半夏半升[洗], 括蔞實[大者]一枚[30]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로써 泄하니 黃連, 瓜蔞實의 苦寒으로써 泄熱한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하니 半夏의 辛味로써 맺힌 것을 푼다고 하였다.

28. 文蛤散

文蛤五兩[31]

五味所入에 의하면 鹹味는 腎으로 들어가니 文蛤의 鹹味로써 水氣를 이길 수 있다.

29. 白散

桔梗三分, 巴豆一分[去皮心熬黑研如脂], 貝母三分[32]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味는 發散하고 苦味는 泄하니, 桔梗, 貝母의 苦辛의 味로써 下氣한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하니 巴豆의 辛味로써 實한 것을 흩는다.

30. 柴胡桂枝乾姜湯

柴胡半斤, 桂枝三兩[去皮], 乾姜二兩, 括蔞根四兩, 黃芩三兩, 牡蠣二兩[熬], 甘草二兩[炙][33]

---

26)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84.
27)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87.
28)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0.
29)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81.
30)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2.
31)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3.
32)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3.
33)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94-95.

www.kci.go.kr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少陰在泉(卯酉年)에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하니 柴胡, 黃芩의 苦味로써 裏로 傳하는 邪를 푼다.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은 發散하여 陽이 되니 桂枝, 甘草의 辛甘의 味로써 表에 있는 邪氣를 흩는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鹹味는 軟堅하니 牡蠣의 鹹味로써 胸脇의 滿을 삭히고, 辛味는 散結 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乾姜의 辛味로써 陽虛의 汗을 견고하게 하고, 苦味는 燥濕 堅軟하니 津液이 不足하여 渴함을 苦味로써 굳게 하니 栝蔞의 苦味로써 津液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31. 半夏瀉心湯

半夏半升[洗], 黃芩, 乾姜, 人參, 甘草[炙], 各三兩, 黃連一兩, 大棗十二枚[擘]34)

五味所入과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肺로 들어가고 散結 潤燥, 致津液, 氣를 흩으니 半夏의 辛味로써 맺힌 氣를 흩는다.

五味所入과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는 心으로 들어가고 苦味로써 泄熱하니 黃芩, 黃連의 苦味로써 脾熱을 瀉한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는 느긋하고자 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니, 人參, 甘草, 大棗의 甘味로써 느긋하게 한다고 하였다.

32. 十棗湯

芫花[熬], 甘遂, 大戟35)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味는 흩으니 芫花의 辛味로써 水飮을 흩고, 苦味로써 泄하니 甘遂, 大戟의 苦味로써 水를 泄한다.

五行의 相剋에 의하면 大棗의 甘味로써 土를 돕고 水를 이긴다고 하였다.

33. 大黃黃連瀉心湯

大黃二兩, 黃連, 黃芩, 各一兩36)

五味所入과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가 心으로 들어가고, 苦味는 泄하니 大黃, 黃連의 苦寒으로써 心下의 虛熱을 泄한다.

34. 赤石脂禹餘糧湯

赤石脂一斤[碎], 太一禹餘糧一斤[碎]37)

十劑理論에 의하면 깔깔함으로써 虛脫을 제거할 수 있으니 赤石脂의 깔깔함으로써 收斂할 수 있고, 무거움으로써 怯弱함을 제거할 수 있으니 禹餘糧의 무거움으로써 鎭靜시키고 굳게 할 수 있다.

35. 旋覆代赭湯

旋復花三兩, 人參二兩, 生姜五兩, 代赭一兩, 甘草三兩[炙], 半夏半升[洗], 大棗十二枚[擘]38)

十劑 理論에 의하면 무거운 劑로써 鎭靜케 할 수 있으니 代赭石의 무거움으로써 虛逆을 鎭靜시킨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鹹味는 軟堅하니 旋覆花의 鹹味로써 痞硬을 부드럽게 하고, 辛味는 散結 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生薑, 半夏의 辛味로써 虛痞를 흩고,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人參, 甘草, 大棗의 甘味로써 胃弱을 補한다고 하였다.

36. 桂枝人參湯

桂枝四兩[別切], 甘草四兩[炙], 白朮三兩, 人參三兩, 乾姜三兩39)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하니 表가 풀리지 않는 경우는 桂枝의 辛味로써 하고,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裏가 不足한 경우는 甘草의 甘味로써 느긋하게 한다고 하였다.

37. 瓜蒂散

34)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5.
35)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6.
36)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96-97.
37)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7.
38)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8.
39)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8.

www.kci.go.kr

瓜蔕一分[熬黃], 赤小豆一分[40]

氣味陰陽에 의하면 酸苦의 味는 涌泄하여 陰이 되니 瓜蔕의 苦味와 赤小豆의 苦味, 酸味로써 涌吐하게 한다.

38. 黃芩湯

黃芩三兩, 芍藥二兩,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擘][41]

五味所用에 의하면 苦味는 燥濕 堅軟하고 酸味는 收緩 斂散하니 黃芩의 苦味와 芍藥의 酸味로써 腸胃의 氣를 수렴한다.

十劑理論에 의하면 虛弱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甘味로써 補하니 甘草, 大棗의 甘味로써 腸胃의 弱함을 補하고 굳게 한다.

39. 黃連湯

黃連,甘草[炙], 乾姜,桂枝[去皮], 各三兩, 人參二兩, 半夏半升[洗], 大棗十二枚[擘][42]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는 泄하니 위에 있는 熱은 黃連의 苦味로써 陽을 내리고, 辛味는 散하니 아래에 있는 寒은 桂枝, 生薑, 半夏의 辛味로써 흩어서 陰을 올린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는 느긋하고자 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니, 人參, 甘草, 大棗의 甘味로써 益胃한다고 하였다.

40. 桂枝附子湯

桂枝四兩[去皮], 附子三枚[炮去皮破八片], 生姜三兩[切],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擘][43]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厥陰司天(巳亥年)에 "風淫所勝, 平以辛涼, 佐以苦甘, 以甘緩之, 以酸瀉之(王注云: 厥陰氣未爲盛熱, 故以涼藥平之)."라고 하였으니, 風이 表에 있는 경우에는 桂枝, 甘草의 辛甘味로써 흩는다.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味는 散하니 濕이 經에 있는 경우에는 附子의 辛熱로써 쫓아내고, 辛甘은 發散하여 陽이 되니 生薑, 大棗의 辛甘으로써 榮衛를 行하고 津液을 통하게 하여 表를 조화케 한다.

41. 甘草附子湯

甘草二兩, 附子二枚[炮去皮破], 白朮二兩, 桂枝四兩[去皮][44]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은 發散하여 陽이 되니 桂枝, 甘草의 辛甘으로써 風邪를 發散하여 衛氣를 굳게 하고, 附子, 白朮의 辛甘으로써 濕氣를 풀어서 溫經케 한다고 하였다.

42. 白虎湯

知母六兩, 石膏一斤[碎], 甘草二兩[炙], 粳米六合[45]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少陰司天(子午年)에 "熱淫所勝, 平以鹹寒, 佐以苦甘, 以酸收之. 寒反勝之, 治以甘溫, 佐以苦酸辛."이라고 하였으니, 熱淫所勝에 苦甘의 味로써 佐하니 知母, 石膏의 苦甘으로써 熱을 흩는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甘味는 緩急 調中하나니 熱이 氣를 傷하게 한 경우에 甘草, 粳米의 甘味로써 益氣한다고 하였다.

43. 炙甘草湯

甘草四兩[炙], 生姜三兩[切], 人參二兩, 生地黃一斤, 桂枝三兩[去皮], 阿膠二兩, 麥門冬半升[去心], 麻仁半升, 大棗三十枚[擘][46]

十劑理論에 의하면 補劑는 怯弱을 제거할 수 있으니 人參, 甘草, 大棗의 甘味로써 不足한 氣를 補한다. 또한 溫劑는 潤澤할 수 있으니 津液이 흩어져서 마르고 五臟이 萎弱하고 營衛가 마르는 경우에 麻子仁, 阿膠, 麥門冬, 地黃의 甘味로써 潤經 益血하고 復脈

40)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99.
41)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00.
42)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00.
43)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01.
44)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01.
45)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01.
46)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01.

www.kci.go.kr

通心한다.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味는 發하여 陽이 되니 桂枝, 生薑의 辛味로써 正氣를 더한다고 하였다.

44. 大承氣湯

大黃四兩[酒洗], 厚朴半斤[炙去皮], 枳實五枚[炙], 芒硝三合[47]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陽明司天(卯酉年)에 "燥淫所勝, 平以苦溫, 佐以酸辛, 以苦下之(制燥之法以苦溫. 宜下必以苦, 宜補必以酸, 宜瀉必以辛)."이라 하니 燥淫所勝에 苦味로써 하니 大黃, 枳實의 苦味로써 潤燥 除熱하고, 陽明在泉(子午年)에 "燥淫於內,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溫利涼性, 故以苦下之)."라 하니 "燥淫於內에 苦溫으로써 치료하니 厚朴의 苦味로써 結燥를 瀉下한다."고 하였다.

또한 少陰司天(子午年)에 "熱淫所勝, 平以鹹寒, 佐以苦甘, 以酸收之."라 하니 熱淫所勝에 鹹寒으로써 치료하니 芒硝의 鹹味로써 쌓인 熱을 공격한다고 하였다.

45. 茵陳蒿湯

茵陳蒿六兩, 梔子十四枚[擘], 大黃二兩[去皮][48]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는 泄하니 茵陳, 梔子의 苦寒으로써 胃燥를 쫓아내고, 大黃의 苦寒으로써 瘀熱을 瀉下한다고 하였다.

46. 麻子仁丸

麻子仁二升, 芍藥半斤, 枳實半斤[炙], 大黃一斤[去皮], 厚朴一尺[去皮炙], 杏仁一升[去皮尖熬][49]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는 느긋해지고자 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니 麻仁, 杏仁의 甘味로써 緩脾하고 潤燥하게 한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酸味는 收緩 斂散하니 津液이 不足한 경우에 芍藥의 酸味로써 津液을 수렴하고, 苦味는 燥濕 堅軟하니 腸燥 胃强한 경우에 枳實, 厚朴, 大黃의 苦味로써 燥結을 내리고 胃强을 泄한다고 하였다.

47. 麻黃連軺赤小豆湯

麻黃二兩[去節], 連軺二兩[連翹根是也], 杏仁四十個[去皮尖], 赤小豆一升, 大棗十二枚[擘], 生梓白皮一升[切], 生姜二兩[切], 甘草二兩[炙][50]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太陰司天(丑未年)에 "濕淫所勝, 平以苦熱, 佐以酸辛, 以苦燥之, 以淡泄之. 濕上甚而熱,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汗爲故(身半以上, 濕氣有餘, 火氣復鬱, 則宜解表流汗而祛之也)."라고 하였으니, 濕이 위에서 甚하고 熱이 있으면 麻黃, 連翹, 杏仁, 赤小豆, 生梓白皮의 苦溫으로써 치료하고 大棗, 生薑, 甘草의 甘辛으로써 佐하니 땀나는 것으로 度數를 삼는다고 하였다.

이 외에 麻黃連軺赤小豆湯을 달일 때 웅덩이 물을 쓰는 이유는 또한 그 물의 맛이 薄함을 취함이니 濕氣를 돕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48. 麻黃細辛附子湯

麻黃二兩[去節], 細辛二兩, 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51]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太陽在泉(丑未年)에 "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以鹹瀉之, 以辛潤之, 以苦堅之(以熱治寒, 是爲摧勝, 折其氣也)."이라 하였으니 寒淫於內에 甘熱로써 치료하고 苦辛으로써 佐하니, 麻黃의 甘味로써 少陰의 寒을 풀고 細辛, 附子의 辛味로써 少陰經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였다.

49. 麻黃附子甘草湯

麻黃二兩[去節], 甘草二兩[炙], 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52]

氣味陰陽에 의하면 麻黃, 甘草의 甘味로써 表寒을

47)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106-107.
48)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11.
49)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13.
50)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15.
51)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120-121.
52)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1.

www.kci.go.kr

흩고, 附子의 辛味로써 寒氣를 따뜻하게 한다.

50. 黃連阿膠湯

黃連四兩, 黃芩二兩, 芍藥二兩, 鷄子黃二枚, 阿膠三兩[一云三挺][53]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는 泄하게 하니 陽이 有餘한 경우에는 苦味로써 제거하니 黃芩, 黃連의 苦味로써 熱을 제거하고, 陰이 不足한 경우에는 甘味로써 補하니 鷄黃, 阿膠의 甘味로써 補血한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酸味는 收緩 斂散하니 芍藥의 酸味는 陰氣를 收斂하고 邪熱을 泄하게 한다고 하였다.

51. 附子湯

附子二枚[炮去皮破八片], 茯苓三兩, 人參二兩, 白朮四兩, 芍藥三兩[54]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附子의 辛味로써 散寒하고,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茯苓, 人參, 白朮의 甘味로써 補陽하고 酸味는 收緩 斂散하니 芍藥의 酸味로써 扶陰한다고 하였다.

52. 桃花湯

赤石脂一斤[一半全用一半篩末], 乾姜一兩, 粳米一升[55]

十劑理論에 의하면 깔깔함은 虛脫을 제거할 수 있으니 赤石脂의 깔깔함으로써 腸胃를 굳게 할 수 있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乾薑의 辛味로써 裏寒을 흩고,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粳米의 甘味로써 正氣를 補한다고 하였다.

53. 桔梗湯

桔梗一兩, 甘草二兩[56]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은 發散하여 陽이 되니 桔梗의 辛溫으로써 散寒하고 甘草의 甘平으로써 除熱한다.

또한 五味所用에 의하면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甘草, 桔梗의 甘味를 서로 合하여 寒熱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54. 半夏苦酒湯

半夏[洗破如棗核]十四枚, 鷄子一枚[去黃內上苦酒著鷄子殼中][57]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하니 半夏의 辛味로써 聲音을 發하게 하고, 酸味는 收緩 斂散하니 苦酒의 酸味로써 咽瘡을 收斂하고,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鷄子의 甘味로써 咽痛을 누그러뜨린다.

55. 半夏散及湯

半夏[洗], 桂枝[去皮], 甘草[炙][58]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太陽司天(辰戌年)에 "寒淫所勝, 平以辛熱, 佐以苦甘, 以鹹瀉之. 熱反勝之, 治以鹹冷, 佐以苦辛."이라 하니, 寒淫所勝에 辛熱로써 平正케 하고 甘苦로써 佐하니 半夏, 桂枝의 辛味로써 少陰經의 寒을 흩는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甘味는 緩急 調中하니 甘草의 甘味로써 正氣를 느긋하게 한다고 하였다.

56. 白通湯

葱白四莖, 乾姜一兩, 附子一枚[生去皮破八片][59]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腎은 건조함을 괴로워하니 急히 辛味를 먹어서 윤택하게 하니 蔥白의 辛味로써 陽氣를 통하게 하고 生薑, 附子의 辛味로써 陰寒을 흩는다고 하였다.

57. 眞武湯

茯苓三兩, 芍藥三兩, 白朮二兩, 生姜三兩[切], 附子一

53)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1.
54)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1.
55)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2.
56)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2.
57)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3.
58)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3.
59)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3.

www.kci.go.kr

枚[炮去皮破八片]60)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惡濕하고, 五味所入에 의하면 甘味는 먼저 脾로 들어가니 茯苓, 白朮의 甘味로써 益脾 逐水한다.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太陽司天(辰戌年)에 "寒淫所勝, 平以辛熱, 佐以苦甘, 以鹹瀉之. 熱反勝之, 治以鹹冷, 佐以苦辛"이라 하니 附子, 生薑의 辛熱로써 平定케 하고, 太陰司天(丑未年)에 "濕淫所勝, 平以苦熱, 佐以酸辛, 以苦燥之, 以淡泄之"라고 하니 芍藥의 酸味와 附子, 生薑의 辛味로써 散濕한다고 하였다.

58. 四逆散

甘草[炙], 枳實[破水漬炙乾], 柴胡, 芍藥61)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少陰司天(子午年)에 "熱淫所勝, 平以鹹寒, 佐以苦甘, 以酸收之."라고 하였으니 熱淫於內에 甘苦로써 佐하니 枳實, 甘草의 甘苦의 味로써 裏熱을 泄하고, 酸味로써 收斂하니 芍藥의 酸味로써 陰氣를 收斂한다.

少陽司天(寅申年)에 "火淫所勝, 平以酸冷, 佐以苦甘, 以酸收之, 以苦發之, 以酸復之"라고 했으니 苦味로써 發하니 柴胡의 苦味로써 表熱을 發하게 한다고 하였다.

59. 烏梅丸

烏梅三百枚, 細辛六兩, 乾姜十兩, 黃連十六兩, 當歸四兩, 附子六兩[炮去皮], 蜀椒四兩[出汗], 桂枝[去皮]六兩, 人參六兩, 黃蘗六兩62)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肺主氣하고 肺는 收斂하고자 하니 急히 酸味를 먹어서 收斂케 하니 烏梅의 酸味로써 肺氣를 收斂케 한다.

또한 脾는 느긋하고자 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니 人參의 甘味로써 脾氣를 느긋하게 한다.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太陽在泉(丑未年)에 "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以鹹瀉之, 以辛潤之, 以苦堅之(以熱治寒, 是爲摧勝, 折其氣也)."이라 하였으니, 寒淫於內에 辛味로써 潤澤하게 하니 當歸, 桂枝, 蜀椒, 細辛의 辛味로써 內寒을 윤택하게 한다.

또한 太陽司天(辰戌年)에 "寒淫所勝, 平以辛熱, 佐以苦甘, 以鹹瀉之. 熱反勝之, 治以鹹冷, 佐以苦辛."이라 하였으니, 生薑, 附子의 辛熱로써 寒氣를 이기게 한다.

또한 蛔蟲이 甘味를 얻으면 움직이고 苦味를 얻으면 편안하니 黃連, 黃柏의 苦味로써 安蛔케 한다고 하였다.

60. 當歸四逆湯

當歸三兩,桂枝三兩[去皮], 芍藥三兩, 細辛三兩, 甘草二兩[炙], 通草二兩, 大棗二十五枚[擘一法十二枚]63)

五味所入에 의하면 苦味는 먼저 心으로 들어가니 當歸의 苦味로써 心血을 돕는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心은 느긋함을 괴로워하니 急히 酸味를 먹어서 수렴하니, 芍藥의 酸味로써 心氣를 수렴케 한다. 또한 肝은 急함을 괴로워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누그러뜨리니 大棗, 甘草, 通草의 甘味로써 陰血을 누그러뜨린다.

61. 麻黃升麻湯

麻黃二兩半[去節], 升麻一兩一分, 當歸一兩一分, 知母十八銖, 黃芩十八銖, 萎蕤[一作菖蒲]十八銖, 芍藥六銖, 天門冬六銖[去心], 桂枝六銖[去皮], 茯苓六銖, 甘草六銖[炙], 石膏六銖[碎綿裹], 白朮六銖, 乾姜六銖64)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은 發散하여 陽이 되니 麻黃, 升麻의 甘味로써 浮熱을 發한다. 苦味는 泄하여 陰이 되니 위에 熱이 있는 경우에는 苦味로써 泄하니 知母, 黃芩의 苦味로써 涼心 去熱한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正氣가 허한 경우에는 辛味로써 윤택하게 하니 當歸, 桂枝, 生薑의 辛味로써 散寒한다. 또한 甘味

60)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81.
61)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5.
62)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8.
63)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9.
64)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30.

www.kci.go.kr

는 緩急 調中하니 津液이 不足한 경우는 茯苓, 白朮의 甘味로써 緩脾, 生津케 한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肺는 收斂하고자 하니 急히 酸味를 먹어서 수렴하니 芍藥의 酸味로써 逆氣를 收斂한다. 또한 五味所用에 의하면 甘味로써 누그러뜨리니 葳蕤, 天門冬, 石膏, 甘草의 甘味로써 潤肺 除熱케 한다고 하였다.

62. 乾姜黃芩黃連人參湯

乾姜, 黃芩, 黃連, 人參, 各三兩[65]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乾薑의 辛味로써 正氣를 補하고 甘味는 緩急調中하니 人蔘의 甘味로써 正氣를 補한다. 또한 苦味는 燥濕 堅軟하니 黃連, 黃芩의 苦味로써 寒으로 格塞한 것을 通하게 한다.

63. 白頭翁湯

白頭翁二兩, 黃柏三兩, 黃連三兩, 秦皮三兩[66]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腎은 굳세고자 하니 急히 苦味를 먹어서 굳세게 하나니, 下利하면 下焦가 虛하므로 純苦한 劑로써 堅固하게 한다.

64. 理中丸

人參, 乾姜, 甘草炙, 白朮, 各三兩[67]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는 느긋하고자 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고 甘味를 사용하여 補한다고 하니, 人參, 白朮, 甘草의 甘味로써 脾氣를 느긋하게 하고 調中한다.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太陽司天(辰戌年)에 "寒淫所勝, 平以辛熱, 佐以苦甘, 以鹹瀉之. 熱反勝之, 治以鹹冷, 佐以苦辛."이라 하니, 寒淫所勝에 辛熱로써 平定하니 乾薑의 辛味로써 溫胃 散寒한다고 하였다.

65. 枳實梔子豉湯

枳實三枚炙, 梔子十四個擘, 豉一升包綿[68]

氣味陰陽에 의하면 苦味는 涌泄하여 陰이 되니 그 熱이 위에 모이면 苦味로써 吐하게 하니 梔子, 香豉의 苦味로써 吐하게 한다.

또한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少陽司天(寅申年)에 "火淫所勝, 平以酸冷, 佐以苦甘, 以酸收之, 以苦發之, 以酸復之"라고 했으니, 熱이 表에 흩어져 있는 경우는 苦味로써 發하게 하니 枳實로써 表熱을 發하게 한다.

66. 牡蠣澤瀉湯

牡蠣熬, 澤瀉, 蜀漆暖水洗去腥, 葶藶子熬, 商陸根熬, 海藻, 括蔞根, 各等分[69]

氣味陰陽에 의하면 鹹味는 涌泄하여 陰이 되니, 牡蠣, 澤瀉, 海藻의 鹹味로써 水氣를 泄한다.

五運六淫用藥式에 의하면 太陰在泉(辰戌年)에 "濕淫於內, 治以苦熱, 佐以酸淡, 以苦燥之, 以淡泄之(濕與燥反, 故以苦熱. 佐以酸淡, 利竅也)."이라 하니, 濕淫於內에 苦味로써 平定하되 酸辛으로써 佐하고 苦味로써 泄하게 하니, 蜀漆의 酸味와 葶藶의 辛苦味와 栝蔞, 商陸의 苦味로써 腫濕을 導下한다.

67. 竹葉石膏湯

竹葉二把, 石膏, 半夏半升洗, 麥門冬一升去心, 人參二兩, 甘草二兩炙, 粳米半升[70]

氣味陰陽에 의하면 辛甘은 發散하여 除熱하니, 竹葉, 石膏, 甘草의 甘辛으로써 餘熱을 제거한다.

五臟五味補瀉에 의하면 脾는 느긋하게 하고자 하니 急히 甘味를 먹어서 느긋하게 하고 甘味로써 補하니 麥門冬, 人參, 粳米의 甘味로써 不足을 補한다.

五味所用에 의하면 辛味는 散結 潤燥, 致津液, 通氣하니 半夏의 辛味로써 逆氣를 흩는다고 하였다.

65)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30.
66)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131-132.
67)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34.
68)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35.
69)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35.
70)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36.

www.kci.go.kr

Ⅲ. 考 察

五味의 일반작용에 대해서 汪昂은『本草備要·藥性總義』에서 "酸者는 能澁 能收요 苦者는 能瀉 能燥 能堅이요 甘者는 能補 能和 能緩이요 辛者는 能散 能潤 能橫行이요 鹹者는 能下 能軟堅이요 淡者는 能利竅 能滲泄이라."[71]고 하였다.

또한 申佶求는『申氏本草學』에서 "收斂·收濕·斂散·斂熱·活血·束表할 病症에 酸味의 藥物을 사용한다. …… 緩急·上行·發生·潤腸·補氣·補陽·解毒 등을 할 病症에는 甘味의 藥物을 사용한다. …… 苦味性藥物은 堅脆·燥濕·直行·降下·涌泄·去垢·解毒·消腫·開導·養血·補陰 등의 病症에 사용한다. …… 散結·驅風·橫行·利竅·潤燥, 健胃할 病症에 辛味의 藥物을 사용한다. …… 軟堅·凝結·沈下할 病症에 鹹味의 藥物을 사용한다."[72]라고 하였다.

한편『中華本草』에서 "酸味는 能收하므로 久咳로 肺氣耗損, 或 多汗不止 等證에 사용하며, 能澁하므로 滑精, 遺精, 久瀉, 久痢, 崩漏, 帶下 및 脫肛, 子宮下垂 等證에 사용한다. 苦味는 能燥하므로 濕盛의 諸證에 사용하고, 能泄하므로 平喘, 除煩, 積滯를 제거하는데 사용하고, 能堅하므로 淸邪熱, 固陰液하는데 사용한다. 甘味는 能補하므로 補氣, 補血, 補陰, 補陽 등의 補虛藥에 많으며, 能緩하므로 臟躁, 筋脈攣急, 脘腹虛痛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能和하므로 調脾胃, 護胃氣하며 藥物의 偏勝한 性質을 緩和하여 正氣를 傷하는 폐단을 면하게 한다. 辛味는 能散하므로 表에 있는 六淫의 邪를 散하며, 氣結, 痰結을 散하며, 梅核氣, 痰核, 瘰癧의 諸症을 消去하고, 能行하므로 氣滯를 行하고 鬱結을 散하여 胸腹脇肋의 脹滿疼痛의 느낌을 消除하고, 行瘀活血하여 消癥, 通經, 止痛하는데 사용하고, 益氣止汗하는 작용과 氣化를 촉진하여 津液을 散布하여 潤燥하고, 滋陰降火하는 약효가 있다. 鹹味는 能軟하므로 痰瘀相結, 脇下硬痛, 瘰癧結核, 睾丸腫硬에 사용하고, 能下하므로 大便이 燥結不通하는 데 사용한다."[73]라고 하였다.

이처럼 五味의 일반적인 특성이 있음에 반하여, 處方에 사용됨에 있어서 동일한 味를 지니고 있더라도 그 작용이 각각 다름을 成无己의『注解傷寒論』에서 발견하였다. 이를 本草의 '同味異用'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申佶求는 "예를 들면 五味子는 五味 중 酸味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肝氣를 收斂하고, 肺氣의 焦乏을 潤澤하게 하여 咳逆上氣를 멈춤으로써 鎭咳를 한다. 白芍藥은 微酸하여 肝을 收斂하고 降火·行血하고, 山茱萸는 味가 酸하고 質이 潤하므로 肝膽에 들어가 滋陰·益血하고, 腎에 들어가 生津·固精한다. 그리고 烏梅는 味가 극히 酸하여 斂肝·澁腸하고 蛔蟲을 제거하고, 五倍子는 性이 浮하고 味가 酸하고 質이 潤하고 囊은 크지만 속이 空虛하여 肺中空虛의 象으로 되었고, 葉間에 생겨서 그 性이 輕浮하므로 斂肺를 주로 하여 頑痰을 收斂하고, 火氣가 肺中에 浮入하여 일어나는 노인들의 咳嗽에 補斂劑로 사용된다. 酸味는 주로 收斂하지만 酸의 極한 것은 도리어 催吐의 작용이 있다."[74]라고 하여 동일한 酸味라도 藥物마다 개체의 특이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이를 方劑의 범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이에 먼저 成无己의『注解傷寒論』에 나타난 五味의 일반작용을 분류하고, 다시 동일한 味를 지니고 있더라도 약물마다 다른 작용, 즉 本草의 '同味異用'을 각각 나누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注解傷寒論』에 나타난 五味의 일반작용

① 酸味

『傷寒論』에 酸味로써 사용된 약재는 芍藥, 赤小豆, 苦酒, 烏梅, 蜀漆이 주를 이루고 있다. 酸味의 작용은 津液을 收斂하고, 邪熱을 涌泄하여 扶陰하며, 逆氣를 거두어서 肺의 正氣를 편안히 하고, 脾胃의 기를 收斂하고, 散濕하고, 心氣를 수렴한다. 涌吐하게 하고, 咽瘡을 수렴하고, 肺氣를 수렴하고, 蜀漆은 腫濕을

71) 汪昂. 本草備要(汪昂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19.
72) 申佶求. 申氏本草學(總論). 서울. 壽文社. 1988. pp.53-56.
73)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1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p.221-222.
74) 申佶求. 申氏本草學(總論). 서울. 壽文社. 1988. p.54.

www.kci.go.kr

제거한다.

② 苦味

『傷寒論』에 苦味로써 사용된 약재는 매우 다양하여 黃芩, 黃連, 黃栢, 厚朴, 大黃, 梔子, 枳實, 柴胡, 虻蟲, 瓜蔞實, 桔梗, 貝母, 知母, 甘遂, 大戟, 瓜蒂, 赤小豆, 茵蔯, 生梓白皮, 麻黃, 連翹, 杏仁, 當歸, 白頭翁, 香豉, 葶藶, 商陸이 사용되었다.

苦味의 작용은 軟弱한 것을 굳게 하고, 下氣, 腹滿을 泄하고, 實을 蕩滌하고, 煩을 涌吐하고, 傳經한 邪氣의 熱을 發하고, 心으로 들어가 熱을 꺾고, 蓄血을 제거하고, 맺힌 熱을 내리고, 泄熱, 生津, 脾熱을 瀉하고, 水를 泄하고, 心下의 虛熱을 泄하고, 腸胃의 氣를 收斂하고, 陽을 내리고, 熱을 흩고, 潤燥 除熱하고, 結燥를 瀉下하고, 胃燥를 쫓아내며, 瘀熱을 瀉下하고, 腸의 燥結을 내리며 胃强을 泄하고, 濕이 위에서 甚하고 熱이 있는 것을 치료하고, 裏熱을 泄하고, 表熱을 發하고, 安蛔, 心血을 돕고, 涼心 去熱, 格塞한 것을 通하고, 下焦가 虛한 것을 堅固하게 하고, 腫濕을 導下한다.

③ 甘味

『傷寒論』에 甘味로써 사용된 약재는 매우 다양하여 甘草, 葛根, 麻黃, 杏仁, 石膏, 大棗, 人蔘, 茯苓, 白朮, 豬苓, 膠飴, 桃仁, 附子, 粳米, 麻子仁, 阿膠, 麥門冬, 地黃, 鷄黃, 通草, 萎蕤, 天門冬, 竹葉이 사용되었다.

甘味의 작용은 弛緩, 陽氣를 회복하고, 表가 풀리지 않는 것을 發散케 하고, '寒淫於內'를 다스리고, 營中의 寒을 發散하고, 衛中의 風을 解除하고, 表邪를 發散하고, 風을 發하고, 속을 느긋하게 하고, 脾土를 도와 腎氣를 平定하고, 脾胃를 돕고, 生津, 陽을 돕고, 陽을 行하고, 正氣를 편안케 하고, 오래된 것을 밀어내고 속을 느긋하게 하고, 虛燥를 潤澤하게 하고 津液을 이롭게 하고, 津液을 돕고 衛를 조화롭게 하고, 中和의 氣를 느긋하게 하고, 小腹이 急結한 것을 누그러뜨리고, 太陽經의 火邪를 發散하고, 맺힌 熱을 내리고, 心下를 느긋하게 하고, 土를 돕고 水를 이기고, 胃弱을 補하고, 裏가 不足한 것을 느긋하게 하고, 腸胃의 弱함을 補하고 굳게 하고, 益胃, 風이 表에 있는 것을 흩고, 榮衛를 行하고 津液을 통하게 하여 表를 조화케 하고, 風邪를 發散하여 衛氣를 굳게 하고, 濕氣를 풀어서 溫經케 하고, 熱을 흩고, 熱이 氣를 傷하게 한 경우에 益氣하고, 不足한 氣를 補하고, 潤經益血하고 復脈 通心하고, 緩脾하고 潤燥하고, 少陰의 寒을 풀고, 表寒을 흩고, 補血, 補陽, 正氣를 補하고, 除熱하고, 寒熱을 조절하고, 咽痛을 누그러뜨리고, 正氣를 느긋하게 하고, 益脾 逐水하고, 裏熱을 泄하고, 脾氣를 느긋하게 하고, 陰血을 누그러뜨리고, 浮熱을 發하고, 緩脾, 潤肺 除熱하고, 調中하고, 餘熱을 제거하고, 不足을 補한다.

④ 辛味

『傷寒論』에 辛味로써 사용된 약재는 비교적 다양하여 桂枝, 乾薑, 生薑, 細辛, 半夏, 附子, 桔梗, 巴豆, 芫花, 葱白, 當歸, 蜀椒, 蜀漆, 石膏 등이 사용되었다.

辛味의 작용은 風邪를 發散하고, 陽氣를 회복하고, 寒을 흩고, 大衛中의 風을 解除하고, 表邪를 發散하고, 水氣를 行하여 腎을 潤澤하게 하고, 肺로 달려서 氣를 돕고, 滯氣를 흩고, 逆上하는 裏氣를 흩고, 陽氣를 굳게 하여 衛를 돕고, 肌表를 조화롭게 하고, 陽氣를 돕고 解表하고, 裏氣가 逆上하는 煩嘔를 흩어서 제거하고, 榮衛를 調和하고, 榮衛를 行하게 하고, 逆氣를 흩고, 下焦에 蓄血한 것을 흩고, 太陽經의 火邪를 發散하고, 맺힌 것을 풀고, 下氣하고, 實한 것을 흩고, 表에 있는 邪氣를 흩고, 陽虛의 汗을 견고하게 하고, 맺힌 氣를 흩고, 水飮을 흩고, 虛痞를 흩고, 表가 풀리지 않는 것을 풀고, 아래에 있는 寒을 흩으며 陰을 올리고, 榮衛를 行하고 津液을 통하게 하여 表를 조화케 하고, 風邪를 發散하여 衛氣를 굳게 하고, 濕氣를 풀어서 溫經케 하고, 正氣를 더하고, 少陰經을 따뜻하게 하고, 寒氣를 따뜻하게 하고, 散寒하고, 裏寒을 흩고, 聲音을 發하게 하고, 少陰經의 寒을 흩고, 陽氣를 통하게 하고, 陰寒을 흩고, '寒淫所勝'을 平定케 하고, 散濕하고, 內寒을 윤택하게 하고, 正氣를 補하고, 溫胃 散寒하고, 腫濕을 導下하고, 餘熱을 제거한다.

www.kci.go.kr

⑤ 鹹味

위의 내용에 의하면『傷寒論』에 鹹味로써 사용된 약재는 芒硝, 澤瀉, 水蛭, 文蛤, 牡蠣, 旋覆花, 海藻 등이 사용되었다. 鹹味의 작용은 熱을 除去하고, 水氣를 泄伏하고, 蓄血을 제거하고, 단단한 것을 軟하게 하고, 水氣를 이길 수 있고, 胸脇의 滿을 삭히고, 痞硬을 부드럽게 하고, 쌓인 熱을 공격한다.

(2)『注解傷寒論』에 나타난 '本草의 同味異用'

① 酸味

酸味는 일반적으로 能澁 能收하는데, 桂枝湯의 芍藥의 酸味는 收斂하고, 小靑龍湯의 芍藥, 五味子의 酸味로써 逆氣를 거두어 肺를 편안히 한다. 芍藥甘草附子湯의 芍藥의 酸味는 津液을 收斂하여 營을 돕고, 小建中湯의 芍藥의 酸味는 正氣를 거둔다. 大柴胡湯의 芍藥의 酸味는 涌泄하여 扶陰하고, 瓜蒂散의 赤小豆의 苦味, 酸味는 涌吐하게 한다. 黃芩湯의 芍藥의 酸味는 腸胃의 氣를 수렴하고, 麻子仁丸의 芍藥의 酸味는 津液을 수렴한다. 黃連阿膠湯의 芍藥의 酸味는 陰氣를 收斂하고 邪熱을 泄하게 하고, 附子湯의 芍藥의 酸味로써 扶陰한다. 半夏苦酒湯의 苦酒의 酸味로써 咽瘡을 收斂하고, 眞武湯의 芍藥의 酸味는 散濕한다. 四逆散의 芍藥의 酸味는 陰氣를 收斂하고, 烏梅丸의 烏梅의 酸味는 肺氣를 收斂케 한다. 當歸四逆湯의 芍藥의 酸味는 心氣를 수렴케 하고, 麻黃升麻湯의 芍藥의 酸味는 逆氣를 收斂한다. 牡蠣澤瀉湯의 蜀漆의 酸味는 腫濕을 導下한다.

② 苦味

苦味는 일반적으로 能瀉 能燥 能堅하는데, 葛根黃連黃芩湯의 黃芩, 黃連의 苦味는 軟弱한 것을 굳게 하고, 麻黃湯의 杏仁의 苦味는 下氣한다. 厚朴生姜半夏人蔘湯의 厚朴의 苦味는 腹滿을 泄하고, 調胃承氣湯의 大黃의 苦味는 實을 蕩滌한다. 梔子豉湯의 梔子의 苦味는 涌吐하고, 梔子厚朴湯의 厚朴, 枳實의 苦味는 腹滿을 泄하고, 梔子乾薑湯의 梔子의 苦味로써 煩을 吐한다. 小柴胡湯의 柴胡, 黃芩의 苦味는 傳經한 邪氣의 熱을 發하고, 大柴胡湯의 柴胡, 黃芩의 苦味는 心으로 들어가 熱을 꺾는다. 抵當湯의 虻蟲의 苦味는 蓄血을 제거하고 大黃의 苦味로써 맺힌 熱을 내린다. 大陷胸湯의 大黃의 苦味는 蕩滌하고, 小陷胸湯의 黃連, 瓜蔞實의 苦味는 泄熱한다. 白散의 桔梗, 貝母의 苦味는 下氣하고, 柴胡桂枝乾薑湯의 栝蔞의 苦味는 津液을 생기게 한다. 半夏瀉心湯의 黃芩, 黃連의 苦味는 脾熱을 瀉하고, 十棗湯의 甘遂, 大戟의 苦味는 水를 泄한다. 大黃黃連瀉心湯의 大黃, 黃連의 苦味는 心下의 虛熱을 泄하고, 瓜蒂散의 瓜蒂의 苦味, 赤小豆의 苦味는 涌吐하게 한다. 黃芩湯의 黃芩의 苦味는 腸胃의 氣를 收斂하고, 黃連湯의 黃連의 苦味는 陽을 내린다. 白虎湯의 知母의 苦味는 熱을 흩고, 大承氣湯의 大黃, 枳實의 苦味로써 潤燥 除熱한다. 大承氣湯의 厚朴의 苦味는 結燥를 瀉下하고, 茵蔯蒿湯의 茵陳, 梔子의 苦寒은 胃燥를 쫓아내며, 大黃의 苦味는 瘀熱을 瀉下한다. 麻子仁丸의 枳實, 厚朴, 大黃의 苦味는 腸의 燥結을 내리며 胃强을 泄하고, 麻黃連軺赤小豆湯의 麻黃, 連翹, 杏仁, 赤小豆, 生梓白皮의 苦溫은 濕이 위에서 甚하고 熱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黃連阿膠湯의 黃芩, 黃連의 苦味는 熱을 제거하고, 四逆散의 枳實의 苦味는 裏熱을 泄하며 柴胡의 苦味로써 表熱을 發하게 한다. 烏梅丸의 黃連, 黃柏의 苦味는 安蛔케 하고, 當歸四逆湯의 當歸의 苦味로써 心血을 돕고, 麻黃升麻湯의 知母, 黃芩의 苦味로써 涼心 去熱한다. 乾姜黃芩黃連人參湯의 黃連, 黃芩의 苦味는 寒으로 格塞한 것을 通하게 하고, 白頭翁湯의 白頭翁의 純苦한 味는 下利하여 下焦가 虛한 것을 堅固하게 한다. 枳實梔子豉湯의 梔子, 香豉의 苦味는 吐하게 하며, 枳實의 苦味는 表熱을 發하게 한다. 牡蠣澤瀉湯의 葶藶의 苦味와 栝蔞, 商陸의 苦味는 腫濕을 導下한다.

③ 甘味

甘味는 일반적으로 能補 能和 能緩하는데, 桂枝湯의 甘草의 甘味와 大棗의 甘味는 이완케 하고, 甘草乾薑湯의 甘草의 甘味는 乾薑의 辛味와 합하여 陽氣를 회복하게 한다. 葛根湯과 葛根黃連黃芩湯의 葛根과 甘草의 甘味는 表가 풀리지 않는 것을 發散케 하고, 麻黃湯의 麻黃, 甘草의 甘溫은 '寒淫於內'를 다스

www.kci.go.kr

린다. 大靑龍湯의 麻黃, 甘草, 石膏, 杏仁의 甘味는 營中의 寒을 發散하고, 大棗의 甘味는 衛中의 風을 解除한다. 小靑龍湯의 麻黃, 甘草의 甘味는 表邪를 發散하고, 麻黃杏仁甘草石膏湯의 麻黃, 杏仁, 甘草, 石膏의 純甘의 味는 風을 發한다. 桂枝甘草湯의 甘草의 甘味는 脾로 들어가서 속을 느긋하게 하고, 茯苓桂枝甘草大棗湯의 甘草, 大棗의 甘味는 脾土를 도와 腎氣를 平定한다. 厚朴生姜半夏甘草人參湯의 人蔘, 甘草의 甘味는 脾胃를 돕고, 茯苓桂枝白朮甘草湯의 茯苓, 白朮의 甘味는 津液을 생기게 하며 陽을 돕고, 甘草의 甘味로써 陽을 行하게 한다. 芍藥甘草附子湯의 甘草의 甘味는 芍藥의 酸味와 附子의 辛味를 조화하고 正氣를 편안케 한다. 調胃承氣湯의 甘草의 甘平은 芒硝, 大黃을 도와서 오래된 것을 밀어내고 속을 느긋하게 한다. 五苓散의 豬苓, 白朮, 茯苓의 甘味는 虛燥를 潤澤하게 하고 津液을 이롭게 하고, 茯苓甘草湯의 茯苓, 甘草의 甘味는 津液을 돕고 衛를 조화롭게 한다. 小柴胡湯의 人蔘, 甘草의 甘味는 中和의 氣를 느긋하게 하고, 小建中湯의 膠飴, 大棗, 甘草의 甘味는 속을 느긋하게 한다. 桃核承氣湯의 桃仁의 甘味는 小腹이 急結한 것을 누그러뜨리고,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의 甘草의 甘味는 桂枝의 辛味와 함께 太陽經의 火邪를 發散한다. 抵當湯의 桃仁의 甘味는 맺힌 熱을 내리고, 半夏瀉心湯의 人參, 甘草, 大棗의 甘味는 心下를 느긋하게 한다. 十棗湯의 大棗의 甘味는 土를 돕고 水를 이기고, 旋覆代赭湯의 人參, 甘草, 大棗의 甘味는 胃弱을 補한다. 桂枝人蔘湯의 甘草의 甘味는 裏가 不足한 것을 느긋하게 하고, 黃芩湯의 甘草, 大棗의 甘味는 腸胃의 弱함을 補하고 굳게 한다. 黃連湯의 人參, 甘草, 大棗의 甘味는 益胃한다. 桂枝附子湯의 甘草의 甘味는 風이 表에 있는 것을 흩고, 生薑, 大棗의 辛甘은 榮衛를 行하고 津液을 통하게 하여 表를 조화케 한다. 甘草附子湯의 甘草의 甘味는 風邪를 發散하여 衛氣를 굳게 하고, 附子, 白朮의 甘味는 濕氣를 풀어서 溫經케 한다. 白虎湯의 石膏의 甘味는 熱을 흩고, 甘草, 粳米의 甘味는 熱이 氣를 傷하게 한 경우에 益氣한다. 炙甘草湯의 人參, 甘草, 大棗의 甘味로써 不足한 氣를 補하며, 麻子仁, 阿膠, 麥門冬, 地黃의 甘味는 潤經 益血하고 復脈 通心하고, 麻子仁丸의 麻仁, 杏仁의 甘味는 緩脾하고 潤燥하게 한다. 麻黃細辛附子湯의 麻黃의 甘味는 少陰의 寒을 풀고, 麻黃附子甘草湯의 麻黃, 甘草의 甘味는 表寒을 흩는다. 黃連阿膠湯의 鷄黃, 阿膠의 甘味는 補血하고, 附子湯의 茯苓, 人參, 白朮의 甘味는 補陽한다. 桃花湯의 粳米의 甘味는 正氣를 補하고, 桔梗湯의 甘草의 甘平은 除熱하고, 甘草, 桔梗의 甘味는 寒熱을 조절한다. 半夏苦酒湯의 鷄子의 甘味는 咽痛을 누그러뜨리고, 半夏散及湯의 甘草의 甘味는 正氣를 느긋하게 한다. 眞武湯의 茯苓, 白朮의 甘味는 益脾 逐水하고, 四逆散의 甘草의 甘味는 裏熱을 泄한다. 烏梅丸의 人參의 甘味는 脾氣를 느긋하게 하고, 當歸四逆湯의 大棗, 甘草, 通草의 甘味는 陰血을 누그러뜨린다. 麻黃升麻湯의 麻黃, 升麻의 甘味는 浮熱을 發하고, 茯苓, 白朮의 甘味는 津液이 不足한 경우에 緩脾, 生津케 하고, 蒇蕘, 天門冬, 石膏, 甘草의 甘味는 潤肺 除熱케 한다. 乾姜黃芩黃連人參湯의 人蔘의 甘味는 正氣를 補하고, 理中丸의 人參, 白朮, 甘草의 甘味는 脾氣를 느긋하게 하고 調中한다. 竹葉石膏湯의 竹葉, 石膏, 甘草의 甘味는 餘熱을 제거하고, 麥門冬, 人參, 粳米의 甘味는 不足을 補한다.

④ 辛味

辛味는 일반적으로 能散 能潤 能橫行하는데, 桂枝湯의 桂枝의 辛味는 甘草의 甘味와 합쳐져서 風邪를 發散하게 하고, 甘草乾薑湯의 乾薑의 辛味는 甘草의 甘味가 합쳐져서 陽氣를 회복하게 한다. 麻黃湯의 桂枝의 辛味는 寒을 흩고, 大靑龍湯의 桂枝, 生薑의 辛味는 衛中의 風을 解除할 수 있다. 小靑龍湯의 桂枝의 辛味는 表邪를 發散하고, 小靑龍湯의 乾薑, 細辛, 半夏의 辛味는 水氣를 行하여 腎을 潤澤하게 한다. 桂枝甘草湯의 桂枝의 辛味는 肺로 달려서 氣를 돕고, 厚朴生姜半夏甘草人參湯의 半夏, 生薑의 辛味는 滯氣를 흩는다. 茯苓桂枝白朮甘草湯의 桂枝의 辛味는 逆上하는 裏氣를 흩게 하고, 芍藥甘草附子湯의 附子의 辛溫은 陽氣를 굳게 하여 衛를 돕는다. 五苓散의 桂枝의 辛味는 肌表를 조화롭게 하고, 茯苓甘草湯의 桂枝, 生薑의 辛味는 陽氣를 돕고 解表한다. 梔子乾薑湯의 乾薑의 辛味는 益氣하고, 小柴胡湯의 半夏의 辛

www.kci.go.kr

味는 裏氣가 逆上하는 煩嘔를 흩어서 제거하며, 生薑의 辛味는 大棗의 甘味와 함께 榮衛를 調和한다. 小建中湯의 桂枝, 生薑의 辛味는 榮衛를 行하게 하고, 大柴胡湯의 半夏의 辛味는 逆氣를 흩는다. 桃核承氣湯의 桂枝의 辛熱은 下焦에 蓄血한 것을 흩고,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의 桂枝의 辛味는 甘草의 甘味와 함께 太陽經의 火邪를 發散한다. 小陷胸湯의 半夏의 辛味는 맺힌 것을 풀고, 白散의 桔梗의 辛味는 下氣하며, 巴豆의 辛味는 實한 것을 흩는다. 柴胡桂枝乾姜湯의 桂枝의 辛味는 表에 있는 邪氣를 흩고, 乾姜의 辛味는 陽虛의 汗을 견고하게 한다. 半夏瀉心湯의 半夏의 辛味는 맺힌 氣를 흩고, 十棗湯의 芫花의 辛味는 水飮을 흩는다. 旋覆代赭湯의 生薑, 半夏의 辛味는 虛痞를 흩고, 桂枝人蔘湯의 桂枝의 辛味는 表가 풀리지 않는 것을 푼다. 黃連湯의 桂枝, 生薑, 半夏의 辛味는 아래에 있는 寒을 흩으며 陰을 올리고, 桂枝附子湯의 附子의 辛熱로써 寒을 쫓아내고, 生薑의 辛味는 大棗의 甘味와 함께 榮衛를 行하고 津液을 통하게 하여 表를 조화케 한다. 甘草附子湯의 桂枝의 辛味는 風邪를 發散하여 衛氣를 굳게 하고, 附子의 辛味는 濕氣를 풀어서 溫經케 한다. 炙甘草湯의 桂枝, 生薑의 辛味는 正氣를 더한다. 麻黃細辛附子湯의 附子의 辛味는 少陰經을 따뜻하게 하고, 麻黃附子甘草湯의 附子의 辛味는 寒氣를 따뜻하게 하고, 附子湯의 附子의 辛味는 散寒한다. 桃花湯의 乾薑의 辛味는 裏寒을 흩고, 桔梗湯의 桔梗의 辛溫은 散寒한다. 半夏苦酒湯의 半夏의 辛味는 聲音을 發하게 하고, 半夏散及湯의 半夏, 桂枝의 辛味는 少陰經의 寒을 흩는다. 白通湯의 蔥白의 辛味는 陽氣를 통하게 하고 生薑, 附子의 辛味는 陰寒을 흩는다. 眞武湯의 附子, 生薑의 辛熱로써 '寒淫所勝'을 平定케 하고, 附子, 生薑의 辛味는 散濕한다. 烏梅丸의 當歸, 桂枝, 蜀椒, 細辛의 辛味는 內寒을 윤택하게 하고, 麻黃升麻湯의 當歸, 桂枝, 生薑의 辛味는 散寒한다. 乾姜黃芩黃連人參湯의 乾薑의 辛味는 正氣를 補하고, 理中丸의 乾薑의 辛味는 溫胃 散寒한다. 牡蠣澤瀉湯의 蜀漆의 辛味는 腫濕을 導下하고, 竹葉石膏湯의 石膏의 辛味는 餘熱을 제거하며, 半夏의 辛味는 逆氣를 흩는다.

⑤ 鹹味

鹹者는 일반적으로 能下 能軟堅하는데, 調胃承氣湯의 芒硝의 鹹寒은 熱을 除去하고, 五苓散의 澤瀉의 鹹味는 水氣를 泄伏한다. 抵當湯의 水蛭의 鹹味는 蓄血을 제거하고, 大陷胸湯의 芒硝의 鹹味는 단단한 것을 軟하게 한다. 文蛤散의 文蛤의 鹹味는 水氣를 이길 수 있고, 柴胡桂枝乾薑湯의 牡蠣의 鹹味는 胸脇의 滿을 삭힌다. 旋覆代赭湯의 旋覆花의 鹹味는 痞硬을 부드럽게 하고, 大承氣湯의 芒硝의 鹹味는 쌓인 熱을 공격한다. 牡蠣澤瀉湯의 牡蠣, 澤瀉, 海藻의 鹹味는 水氣를 泄한다.

이상과 같이 一味로써 그 작용을 논하였으나, 실제로는 單味가 아니라 여러 味가 혼합되어 있는 藥物이 대부분인데, 『東醫學槪論』에는 "많은 약물에는 氣는 한 가지인데 味를 여러 가지 겸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桂枝는 辛甘하면서 溫하고 生地黃은 苦甘하면서 차다. 이 사실은 한 가지 약물에도 여러 가지 작용이 있다는 것과 약물간의 성능이 서로 같다 해도 각각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특성을 파악하여 동일한 熱證에 속하나 表熱에는 辛溫 發散藥을 쓰고, 實熱 裏結에는 苦寒 瀉下藥을 쓰고, 津液이 傷한 데는 甘寒 生津藥을 쓴다"[75]라고 하여, 여러 味가 어떻게 겸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藥物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맛의 同味異用뿐만 아니라 兼해있는 藥味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兼해있는 藥味를 고려하더라도 그것으로써 해당 약물의 특성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藥物의 四氣(寒熱溫凉), 升降浮沈, 藥物의 質의 輕重, 用藥 部分, 형태, 서식 지역, 서식 시기, 채취 시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Ⅳ. 結 論

이상으로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에 나타난 本草

75) 한상모 외 10인. 동의학개론. 서울. 여강출판사. 2005. p.260.

www.kci.go.kr

의 同味異用에 대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處方 내의 本草 작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획일적으로 五味의 一般論으로만 해석하여 穿鑿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味를 지니고 있더라도 그 작용이 각각 다른 '同味異用'까지 고려하여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本草의 '同味異用'을 예로 들면, 酸味는 일반적으로 能澁 能收하는데, 芍藥의 酸味는 逆氣를 수렴하고, 津液을 收斂하여 營을 돕는데 반해, 赤小豆의 酸味는 涌吐하게 한다.

3. 苦味는 일반적으로 能瀉 能燥 能堅하는데, 黃芩, 黃連의 苦味는 心脾熱을 瀉하는데 반해, 大黃의 苦味는 實을 蕩滌한다.

4. 甘味는 일반적으로 能補 能和 能緩하는데, 甘草의 甘味는 脾로 들어가서 心下를 느긋하게 하는데 반해, 葛根의 甘味는 表가 풀리지 않는 것을 發散케 한다.

5. 辛味는 일반적으로 能散 能潤 能橫行하는데, 桂枝의 辛味는 衛中의 風을 解除하는데 반해, 乾薑의 辛味는 裏寒을 흩고, 溫胃한다.

6. 鹹者는 일반적으로 能下 能軟堅하는데, 芒硝의 鹹味는 쌓인 熱을 除去하고 軟堅하는데 반해, 澤瀉의 鹹味는 水氣를 泄伏한다.

參考文獻

<論文>

1. 朴勝正, 金完熙. 五味에 對한 文獻的 考察(酸味와 肝機能系의 關係를 中心으로). 慶熙韓醫大論文集. 21권 1호. 1988.

<單行本>

1.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64, 87, 90, 113, 115, 125. pp.67-68, 71-72, 75-79, 81-84, 92-111, 120-123, 128-132, 134-136.
2. 申佶求. 申氏本草學(總論). 서울. 壽文社. 1988. pp.53-56.
3. 汪昂. 本草備要(汪昂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19.
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敎室.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p.62-63.
5.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1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p.221-222.
6. 한상모 외 10인. 동의학개론. 서울. 여강출판사. 2005. p.260.

www.kci.go.kr